

<2012년 7월 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메시아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삼위일체의 성자를 믿고 알았는데,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성자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되었다.
2. 성자에게 직접 가는 자가 그 시대 중심인물이요, 구원자다. 성자는 그를 통해 그 시대 구원역사를 펴신다.
3. 시대 구원을 얻을 자들은 그 중심자를 통해 성자 앞에 가야 된다.
4.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지만,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다.
5.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지만, 백성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6.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지만, 그 시대 구원을 얻을 자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다.
7. 전쟁터에서 한 부대의 중심 지도자는 본대와 직접 통하는 무전기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병사들은 그 부대의 중심 지도자와 통하는 것만 가지고 있다.
8. 시대 중심자는 하늘과 직접 통하고, 나머지는 그 중심자로 말미암아 하늘과 통하게 된다.
9. 구약시대 때는 ‘종의 몸’인 노아,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다.
10. 신약시대 때는 ‘아들의 몸’인 메시아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자 주님께 나아갔다. 메시아는 하늘과 직접 통한다.

11. 성약시대 때는 ‘신부의 몸’인 성자 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나아가고 신랑 되신 성자 주님께도 나아간다.

12. 상대성 질서 세계다.

13. 악과 불의한 자가 선과 선한 자와 하나 될 때까지 기회를 주어 회개하게 한다. 그런데도 악이 선이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은 선과 악을 쪼개 내신다.

14. 때가 되었는데도 선에서 악을 안 쪼개 내면 선이 악으로부터 해를 당한다. 고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선과 악을 쪼개신다.

15.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되면 선과 악을 쪼개는 역사다.

16. 악이 회개하고 선이 되는 기회를 잃으면, 계속 선의 세계에 머물지 못하고 악의 세계로 간다. 결국 음부, 무저갱, 지옥으로 간다.

17. 산에서 눈 위에서 스키를 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그때 못 멈추면 계속 미끄러져 내려간다. / 멈춘 곳에서부터 다시 타고 내려온다. 영계도 육계도 그러하다.

18. ‘회개’는 계속 사망으로 미끄러져 가는 것을 멈추게 한다.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